



옴팡진 대사로 어른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 만화가의 짧지만 매콤한 이력사항을 보면, 대표적인 Z등급
변태어로 개그만화 <애육전선 이상없다>, 멸종영화 3단변신
패러디만화 <카툰불패>, 아방가르드 포스트사머니즘 형제 역
선코미디 <감격브라다쓰>, 초절정 리얼공상 생활만화 <탐구생
활>, 아스트랄 걱정헤비급 개그만화 <라스베가스 디스코 익스
프레스>가 눈에 들어온다. 그는 “177센치멘탈에 64근의 몸매
를 가진 34년 묵은 애육만화가”로 가수 보아, 50년대 흑백영
화와 B급 호러영화, 60년대와 70년대 올드 팝을 좋아하며, “부
패한 도시를 파괴하는 괴수가 나오는 구닥다리 호러 SF영화
를 만드는 것”이 장래 꿈이다. <애육전선 이상없다>로 ‘애육만
화가’의 명성을 얻고, 나아가 열광적인 독자들에게 의해 ‘어록만
화가’가 되어버린 ‘메가쓰킹’ 고필현을 만났다.

글 차선아 본지 책임편집자 사진 박정훈

아버지는 말하셨지, ‘애육’은 사탄의 만화라고

문화예술 <애육전선 이상없다>와 <탐구생활>은 인터넷에서 어록이 나돌 정도로 인기
를 끌었다. 이렇게 대표작을 보면 대부분 연재만화다. 만화가가 된 계기와 연재만화를
하게 된 동기는?

메가쓰킹 유치원 시절부터 그리는 걸 좋아했다. 왜 달려 뒤에 그림들 그리잖나. 나도 어
릴 때 내내 그랬다. 고등학생 때 졸업만 하면 만화가 문하생으로 들어가겠다고 아버지
께 우기다가 골프채로 맞았는데,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을 받
는다”면서 반대하셨다. 결국 대학에 가는 걸로 합의는 했지만, 그럴 바엔 여자가 많은
과에 가야겠다고 싶었다. 그래서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했고, 만화가가 되기 전까지는 요리
의 세계에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만화가가 돼야 한다, 만화를 그려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했으므로 서른부터 만화를 시작하게 됐다. <애육전선 이상없다>를 연재한 곳은 스포츠신문이었고, 거기서는 <아색기가>나 <멜랑꼬리> 같은 류를 원했다. 연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성을 주제로 한 반전만화 형식이었는데, 석 달 만에 짤릴 뻔했다. 대사발이
없는 <아색기가>와 비슷한 스타일이라 인기를 끄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당신 말대로, 만화가로서 인지도가 높아진 원인은 ‘말발’이다. 일반적으로 아
니, 통념적으로 만화의 인기에는 그림 스타일과 스토리가 중요하다고들 한다. 그 점에
서 예외적이라 할 만한데 어디서 영향을 받았나?

메가쓰킹 대본소 만화나 단행본으로 나오는 만화는 즐겨보는 편이 아니었다. 가장 영
향을 미친 것은 신문 연재만화로, 좋아하는 작가는 박광수와 이우일이었다. <광수생각>
이나 <도날드 닭> 같은 경우 내용이나 스타일 면에서 새로웠고, 특히 켈러라는 점이 다
르기도 했다. 그리고 ‘말발’은 우연한 기회에 나오게 된 거다. <애육전선 이상없다> 연재
가 지지부진한 데다,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라 아버지께서는 ‘애육’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고 ‘사탄의 만화’라고 하실 정도였다. 물론 잊지 않고 박통시절이라면 잡혀 갔을 것이
라고도 해주셨다. 이렇게 사면초가일 때 친한 만화가 강풀이 “네 습작은 말을 주제로
한 것이 많으니 말로 한 개그만화로 가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몇 달 그렇게 해보니 먹
히더라.

당신들의 '어록'이 섬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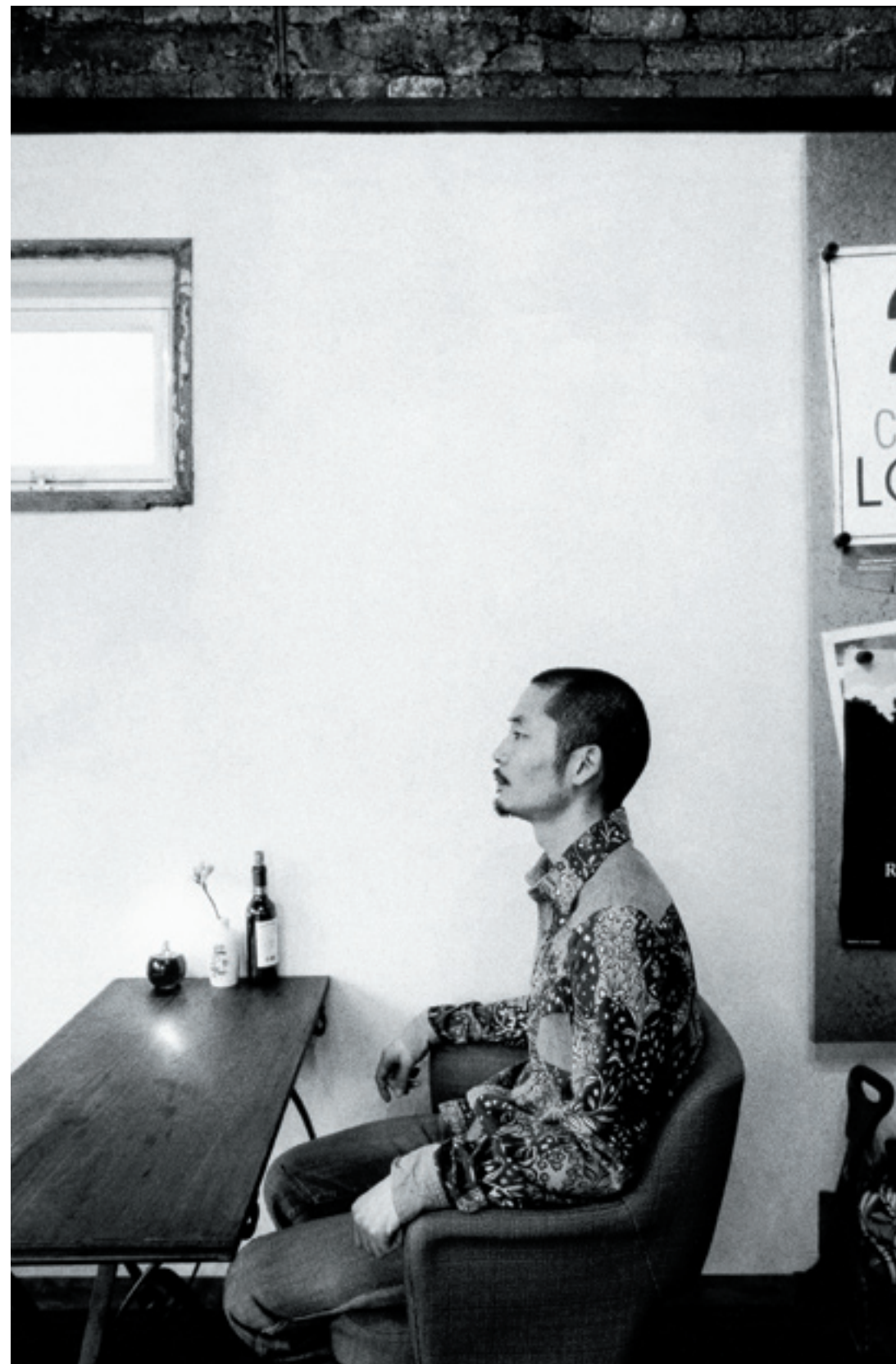
문화예술 “병풍 뒤에 누워서 향냄새 맡고 싶냐”라든가, “민는 순두부에 이빨 뽀개지는 일 없겠지” 같은 대사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겠지만, ‘어록의 만화가’로서 ‘어록탄생’의 비결을 말해준다면? 그런 어휘를 구사하는 사람이나 일종의 채널 같은 것이 있나?

메가쓰킹 인터뷰를 했다 하면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다. 내 만화에는 대사가 주구장창 나오는데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 반, 생활에서 가져오는 게 반이다.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재밌는 표현이 걸려들지 않나? ‘병풍’ 같은 경우는 ‘(조폭)형님들’ 용어인데 만화에 어울릴 것 같아 써본 것이고, ‘순두부’는 사람들이 종종 쓰는 표현 아닌가? 그리고 길거리에서 배우는 것도 많다. 자전거나 버스를 주로 타고 다니니까(인터뷰를 하러 올 때도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간판을 유심히 보는데, 간판에 집착하는 편이다. 간판의 색채, 이틀테면 보색대비 같은 경우는 색감 공부도 되고, 기발한 상호에서 착상을 얻기도 한다. 안국동에 ‘문희준 한복연구소’라고 있는데 문희준이 떠오르더라. 호프집 이름이 ‘더스틴 호프만’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말의 재미나 상황적 재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문화예술 사실 한번 웃기기 시작하면 끝까지 웃겨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지 않나? 그리고 인터넷이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당신의 만화 대사를 생활에 ‘인용’하는 것을 보면 어떤가?

메가쓰킹 웃겨야 한다는 강박을 무시하고 나가면 돈을 버는 거고, 조절하면 끝이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도 주인공이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나. “오락을 원하냐”고 ‘어록’이 떴을 때 처음에는 좀 창피했다. 술 진짜 좋아하는 양반들이 필름 끊겼다가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저지른 만행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연재를 했는데, 거리를 지나갈 때 알은체를 하면서 억지로 대사를 인용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가 있다. 그러면 섬뜩해진다. 뭐하는 건가 싶어서. 예전에 여중생한테서 내 만화 대사를 잔뜩 인용한 팬레터를 받은 적이 있다. 알다시피 내 만화는 19금이라 황당했는데, 만화 잘 보고 있으며 책을 담임선생한테 압수당했다는 내용이였다. 그런데 한 달 뒤쯤 그 선생한테서 팬레터를 받았다. 역시나 그 메일에도 대사가 섞여 있어서 섬뜩했다.

문화예술 어록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일회성 만화가 선호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연재만화의 특성상 한 번에 기승전결을 다 담아내기가 쉽지



않고, 단타에 웃기기 쉽지 않다. 반전이 성공적이라야 가능하니 말이다. 그 점에서 어록이 주효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탐구생활> 같은 경우는 기존과 다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당신 작품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본 작품이기도 했고, '33년 전통 메가쓰킹만화가가 발로 그리는데'이라는 부제에서 느껴지듯, 말의 재미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가져오는 내용의 재미도 컸다.

메가쓰킹 '애욕'이나 다른 만화들이 만들어낸 픽션이었다면 <탐구생활>은 개그를 달린 교양만화 컨셉트였다. 그런 작업에 흥미를 느끼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식의 교양만화를 해보고 싶다.

재밌어지는 순간 진부해질 뿐이다

문화예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심각한 질문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인터뷰 청탁서에 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봐야겠다. 사실 <판지일보>를 시조로 꼽을 수 있겠지만, '말 재밌게 하는 풍조'가 요즘 대세 아닌가? 개그프로그램도 몸으로 하던 슬랩스틱 스타일에서 말로 하는 스탠드업 스타일로 바뀌었다. 라디오와 TV 토크쇼에서 연예인들이 각종 재담을 불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풍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영향을 받기도 할 텐데?

메가쓰킹 갑자기 진지한 분위기가 되니까 호흡이 가빠진다. 사실 내 만화가 그런 흐름에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 분위기가 변한 것 아닌가. 예전에는 말 한 마디를 해도 안에서 많이 걸러서 해야 되고 뭐랄까, 경직된 말이 많았다. 요즘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고 다들 거침없이 말하지 않나? <판지일보>처럼 인터넷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말이든 재미든 많이 거침없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거침없이 하이킥>은 아예 브라운관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서너 해 전이라면 기획도 불가능했을 텐데, 예전에는 절대 소재로 삼을 수 없던 사건이나 장면도 나온다. 하지만 일단 재밌어지면 그 다음은 진부해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개그콘서트>나 <웃찾사>도 작년 것을 보면 진부하지 않나. 언어유희는 내가 가진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나는 꿈과 희망을 주는 만화를 그리고 싶을 뿐이다.

너른 다수보다는 깊은 소수를 원한다

문화예술 '꿈과 희망을 주는 만화'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꿈과 희망을 주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다. 어떤, 누구를 위한 꿈과 희망을 담은 만화인가?

메가쓰킹 내 독자는 어른들이고, 그 중 남자들의 꿈과 희망이라고 하면 팔등신의 여자가 자신을 휘어잡는 것이다. 그러니 '질펀질펀한 꿈과 희망'이 있는 만화, 다양한 코드의 성인 개그만화인 셈이다. 개그라고 하니까 말하는 건데, 난 개그가 말로 웃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요즘 보면 개그맨과 우리 독자들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UCC만 봐도 개그맨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만화가도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가끔 만화든 문화든, 미래의 원시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

문화예술 갑자기 미래의 원시시대라니, 어떤 형태의 변화를 말하는 건가?

메가쓰킹 책에서 원시시대의 물물교환처럼 일대일 교환의 시대가 다시 온다고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미래에는 내 만화를 좋아하는 마니아들과 직거래를 하게 될지도 모를 일 아닌가. 문희준을 예로 들어보자. 인터넷에서 악플이 줄을 잊지만, 마니아층이 두텁다는 점에서 배울 게 많다. 열혈팬들이 피아노나 오토바이를 사줘서 화제였고, 얼마 전에는 집에 그의 동상을 세워준 일도 있었다. 난 그게 소설가든, 만화가든, 영화배우든 미래의 형태라고 생각한다. 독자나 소비자가 다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소수지만 깊게 가고, 여기에 나를 향한 인구가 만 명만 된다면 금상첨화라고 본다.

문화예술 블로그에서 "사랑의 2단합체를 한다"는 결혼공지를 봤는데, 미리 축하한다. 결혼 준비로 분주할 텐데 호흡하기 곤란한 질문이 좀 있는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 자전거 마니아답게 신혼여행도 자전거로 간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나?

메가쓰킹 결혼 준비보다 신혼여행 준비가 더 힘들다. 두 달 동안 자전거로 전국을 돌 예정인데, 자전거 정비도 배우고 체력도 키우면서 준비 중이다. 여자친구도 같이 준비 중인데 고맙게도 다리가 (장 클로드) 반담 다리다. 신혼여행을 배낭여행으로 다녀온 다른 커플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정서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한다.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지치거나 힘들면 서로 싸우게 되니까. 신뢰나 기대 같은 것이 깨지지 않겠나. 배가 고프 극한의 상황에서 숨겨둔 초코파이를 몰래 먹다 걸릴 때, 혹은 불 안쪽에 몰래 사탕을 숨겨 먹다가 들킨다고 상상해봐라. 물론 다투지 않고 잘 다녀올 생각이다. (웃음)